



주간 제 8024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음력 12월 23일)

머물고 싶은 광주전남...이제 세계인을 홀려보자

무안국제공항 활용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가능
광주 도심 체류→전남 전역 순환 관광 동선 확보
경쟁력 대폭 상승...인프라 확충·실행 로드맵 절실

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발전방안 및 제언

- (1) 프롤로그
- (2)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 (3) 군 공항 이전·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4) AI·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 (5) 글로벌관광벨트 구축
- (6) 광역교통망 재정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통합 이후 관광 분야에서 나타날 변화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각각 도시문화와 해양·섬 관광이라는 뚜렷한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행정과 정책이 분리되면서 관광 동선과 전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광역 단위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통합 이후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의 관광자원을 개별 지역 차원이 아닌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정책을 설계하고, 중장기 관광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방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29일 열린 광주·전남 통합 문화예술·관광 분야 시민공청회에서 관광 단체들은 행정통합 이후 관광 정책의 일관성



도시문화·역사·미식이 집약된 광주와 해양·섬·생태·치유 자원이 풍부한 전남은 서로 다른 성격의 관광 자산을 갖추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관광 자산을 유기적으로 묶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왼쪽)와 순천만국가정원(오른쪽) 모습.

과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의 마이스(MICE) 산업과 도심 자원이 전남의 생태·해양 관광자원과 결합된다면, 체류형·복합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

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광주의 관광 구조는 예술·미식·도시문화 중심의 단기 방문형 성격이 강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각종 축제, 미식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인근 지역으로의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남 역시 다도해와 남해안, 섬·치유·생태



광안리해변과 순천만국가정원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관광 자산을 유기적으로 묶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왼쪽)와 순천만국가정원(오른쪽) 모습.

관광자원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 동선이 분산돼 있어 체류형·순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광주와 전남은 관광객 규모에 비해 소비와 숙박,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산업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는 ‘드러는 관광지’, 전남은

‘멀고 흩어진 관광지’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관광자원 대비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관광 정책을 단일 권역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허울뿐인 통합법...재정·권한 빠진 ‘속 빈 강정’”

전남광주특별법 특례 119건 탈락 실효성 논란
국회 공청회서 전문가·국회의원 등 정부 ‘질타’

“지역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통합을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분권 의지가 미흡한 데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통합이 되겠습니까?”, “해마다 5조 원을 주겠다는 내용마저 명문화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에 따르는 재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9일 오전 국회 본관 제3 회의장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졸속 광역행정통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9·19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9개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

확대된 자치권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보 △지방방위의 연방정부 수준 권한 이양 △각 통합권역별 특례조항의 지역별 특화 및 규제철폐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과감한 이양이 절실한데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와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은 특례 374개 가운데 정부가 119개를 불수용했다. 특례조항들을 다시 검토해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허울뿐인 통합법이 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정부에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양부남 의원(서귀포)은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은 이에 미치지 못해 동령 뚝과 배치되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며 “불수용한 119개 특례 중에 어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주려낸 전남 에너지산업과 농수축산업 특례와 광주 AI모빌리티 특례 등 45개 특례 조항은 정 부가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게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수석

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자원 이양과 재정 특례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 분권에 대한 부의 소극적인 태도, 소외지역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기득권 지키기’ 관행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전남광주행정통합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재정건전성 실현, 대도시행정기구 설치, 지역균형발전안 등을 특별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밀라노 동계올림픽 첫 메달...스노보드 ‘은’ 김상겸 ▶관련기사 15면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5대 권역별 전략 제시...“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균형발전 구상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균형발전 구상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9면

이병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의 비전과 광주의 희망을 함께 품고 말이 아닌 실제 성과로 변화를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인구 감소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행정통합이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전략도 제시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통합시대에는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

고, 위기를 정확히 진단해 실질적인 해법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전남의 비전과 광주의 희망을 함께 품고, 말이 아닌 실제 성과로 변화의 높이를 증명하는 시장, 이병훈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VVIP (B형)	700		- 회원업증, 무기명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월 기준 /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월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happinesscc@hanmail.net

· 골프호텔 객실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